

정읍 시니어닥터, 이웃 사랑도 귀감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
처방약 확대 등 운영체계 개선
2025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정
포상금 100만원 이웃돕기 기부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니어닥터 지역 주치의제도'가 농촌 의료공백 해소의 혁신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닥터인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의 이웃사랑 실천이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시는 현신적 활동으로 보건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임경수 지소장에게 100만원의 적극행정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임 지소장이 이를 다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의 '시니어닥터 지역 주치의제도'는 이학수 시장이 농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의사를 직접 채용해 지역 주치의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2024년 당시 임경수 정읍아산병원장을 찾아가 지역 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하며 지역 주치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책적 설득과 현장의 공감이 맞물리며 탄생한 '시니어닥터 지역 주치의제도'는 단발성 진료를 넘어 상담과 관리, 연계로 이어지는 지속적 인 의료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됐다.

퇴직 후 고부보건지소에서 1년여간 근무해 온 임경수 지소장은 제도가 종이 위에서만 머물지 않



정읍시의 전국 최초 시니어닥터로 활동하며 보건행정의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임경수(왼쪽)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이 시가 지급한 적극행정 포상금을 다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후 이학수 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 주민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또 보건지소 내 처방약 구비 품목을 기준 20종에서 36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운영체계 개선을 단행하며 주민들에게 진료 후 추가 이동 없이 필요한 약을 즉시 제공하는 등 불편을 없앴다.

시는 그런 임경수 지소장에게 '2025년 정읍시를 빛낸 최고의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정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임 지

소장은 다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니어닥터 지역 주치의제도는 농촌 현실에서 출발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설계한 정읍형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임경수 지소장의 협동과 따뜻한 결단은 공직 사회가 지향해야 할 책임과 품격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송산동 순정축협~송령교 왕복 2차선 완공

30억 투입 총연장 483m 구간
보행자 전용 도로 신설 안전성 ↑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준공으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페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상수도 요금 인상 1년 유예

고물가·경기침체에 시민 부담 완화·민생안정 도모

남원시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2027년으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현재 남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수준으로, 전라북도 평균인 약 64%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해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차례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요금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인식하면서도,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유예기간동안 경영 효율화와 비용절감노력을 병행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공식 문자에 '안심마크' 도입

발신자 정보 명확하게 표시 피싱·스미싱 예방

남원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 남원시 BI와 함께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가 적용된다.

남원시는 시민과의 신뢰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및 스미싱 피해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 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 기능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인증을 거친 '안심마크'를 문자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남원시가 발송하는 공식 문자에 적용된다.

기존의 일반 문자 메시지 형식과 달리, 발신자 정보가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며, 현재 서비스 중인 시 BI로고와 같은 브랜드 요소를 포함해 시작적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수신된 문자가 남원시의 공식적인 정보인지, 혹은 기관을 사칭한 스팸이나 악성 링크를 포함한 스미싱인지 보다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마크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남원시가 시 공식 문자메시지에 안심마크를 도입해 피싱·스미싱 등 문자 사기 예방에 나선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청년 창업 등용문 '창업패키지 사업'

4년간 10개 기업 발굴·육성 ... 매출 8억·신규 일자리 34명 창출

고창군이 2022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한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10개의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다. 매출 8억 원 달성, 신규 일자리 34명 창출 등 기초적인 성과를 통해 첨예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1~5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화 자금 지원, 네트워킹 연계 등을 원스톱

으로 지원한다.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컨설팅과 사업 고도화를 병행하면서 창업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지원 대상은 총 10팀에 이른다. 사업 참여 첫해에 약 3억 3000만 원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2월 기준 전체 누적 매출액은 8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기반 청년 창업의 성장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수혜 기업을 통해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34명으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